



경주근처 안강 이라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다닐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조그만 학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에 가면 공짜로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3시간이나 걸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입학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교장은 너무 멀으니 포기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우겨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년은 3년 동안이나 새벽4시에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먼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입학금이 없어서 인근 시골 농업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갔습니다.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렵게 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잠시 교사생활을 하다가 더 큰 꿈을 품고 국민대 사회체육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학에 관심이 생겨서 의대 청강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도 아닌데 청강한다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온 것 수모를 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의학 수업을 계속 청강했습니다.

중간고사 때 시험지를 주지 않자 나도 한 장 달라며 교수에게 항의 하는 뻔뻔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의대생들 보다 더 훌륭한 답을 써서 의대 교수들을 놀래 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의학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졸업장도 못 받는 수업을 10년이나 청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대졸업장도 없는데 연세대 의대 교수 공개 채용에 지원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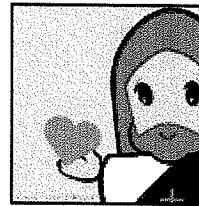
그리고 유학파 출신, 명문대 의대 졸업생출신의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실력으로 연세대 의대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신바람박사 "황수관" 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 "바보 같은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3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8월 1일
☎525-3858/369-5077.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byus.net

선인장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작자미상-



선인장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 선인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투박하고 굵은 줄기에, 가시만 가득하고 꽃도 잘 피지 않는데.

그 사람은 촘촘한 가시들 사이로 서슴없이 손을 넣어 벌레들을 잡아줄 뿐 말이 없었습니다.

가시에 찢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손이 안쓰러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많은 가시들 중 얼마를 잘라버리면 어떠냐고, 가시에 찢리지도 않고 조금 편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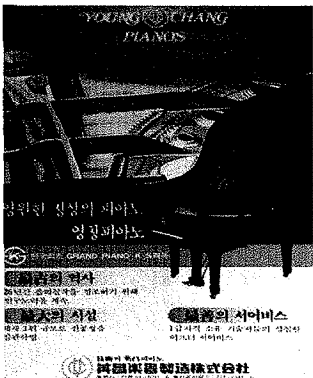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많은 가시들 중 가장 굵고 긴 가시 끝에서 꽃이 핀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인장들을 어디에 쓸 거냐고? 그는 여전히 벌레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선인장들은 다 자라면 사막으로 가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을 거라고... 쓰디쓴 목마름도 견디어내야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꽃이 피기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지 않느냐고? 그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시투성이었던 나를 기다려주시고 가슴으로 안아주셨던 그분을 생각한다고.

◀그때 그랬지▶ 영창피아노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이 광고노래 기억하시나요? 학년초가 되면 으레히 쓰던 가정환경 조사에 TV나 전화를 소유했는지가 부유의 척도가 되던 시절, 피아노까지 있는 친구는 아주 잘사는 집 아이로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달력 뒤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 입으로 소리를 내며 그렇게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그때의 바이엘 악보를 찾아 건반을 누르면 추억이 은파되어 나올 것 같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9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 (시 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337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재영 안수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3:16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왜 날 사랑하나?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358장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8월의 예배위원◆

◆8월의 교회력◆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1	이재영	장유진	11구역
8	장현중	정성호	1구역
15	정덕수	정이지	청년부
22	정희자	조미애	2구역
29	지찬영	추미선	3구역

1	구역예배(6) 3.4선교회 운동
8	믿음의어머니기도회(10)
15	은 십자가성가대(4여) 학생부 Sports day(15)
22	수요수도원(25)
29	이삭줍기주일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 (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8월! 조금씩 봄으로 가고있는 달력을 넘겼습니다. '이번 달에는 무슨 좋은 날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매달 달력을 넘기게 됩니다. 어느 시인은 "8월은 오르는 길을 잠시 멈추고 산등성 마루턱에 앉아 한번쯤 온 길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달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번 8월은 영주권 소식, 가족의 일, 건강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 교우소식
<한국방문 후 귀국> 이금선 집사
<이전> "Duke Institute of Academy" 경덕현, 김인희 집사
12 Hurston St. Takapuna
- 금주는 정기구역예배주간입니다. <일시> 6일(금)
*구역식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즐거움 나누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어떻해야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3,4남선교회 친교 'Indoor 축구'
*아직 20대같은 체력이란 자부심으로 충만한 3,4남선교회원들의 마음, 오늘 'Indoor 축구' 에서 다 드러냅니다. 자랑면 내기라는 소문도 있던데.....
<일시> 오후 2:30-4:30 <장소> Avondale College Stadium
- 정기당회. 오늘 Tea Time 후
- Video Tape(감사의 콘서트. Pump House): \$5 (Hall)
*잘 보관해 두면 훗날 자녀가 커운 시간을 돌아보게 될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우리가 하나님 만을 생각하며 그 분 앞에 앉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쁘게 혹은 느슨하게 지내다보면 금방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착한 시인들▶ 접시꽃 당신
도종환
옥수수원에 빗방울이 나립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낙엽이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는 날들은
참으로 짧습니다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갑니다
씨앗들도 열매로 크기엔
아직 많은 날을 기다려야 하고
당신과 내가 갈아엎어야 할
저 많은 묵정밭은 그대로 남았는데
눈두렁을 덮는 망초대와 잡풀가에
넋을 놓고 한참을 앉았다 일어섭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두고 죽은 시인의 아내가 불쌍했는데 오늘 다시 읽을 땐 랜드로버를 즐겨 신고다니던 그때 20대의 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슬픔도 그리움으로 변해서 남는가 봅니다.
여자친구들(?)에게 생일이란 핑계로 주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는 시집인데 정작 아내 될 사람에게 선물로 주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아 혼란스럽습니다.